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좌담회”



편집자 주 :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 경기의 퇴조로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있다. 따라서 本誌에서는 업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자제품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本稿는 동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 것임을 밝힌다.

일 시 : 1990. 4. 19(목)

장 소 : 만 보 장

참석자 : 권 혁 조

동양정밀공업(주) 부회장

이 회 춘

대성전자공업(주) 사장

황 태 진

(주)메텍스 전무

천 박 미

삼성전자(주) 이사

이 기 방

기린전자(주) 사장

최 영 호

(주)오트론 이사

한 규 완

본회 상근부회장

이 흥 부

본회 상무이사

사 회 : 민 근 흥

본회 업무이사

66

부품·소재 개발의 열쇠인 부
품업체와 세트업체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업계간 신뢰 풍토가 조성
되어야...

99



한 규 완 부회장

한규완 부회장 :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수출 증대를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업계를 위해서 우리 진흥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자리를 통하여 좋은 의견들을 직접 듣고 전자업계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계기로 전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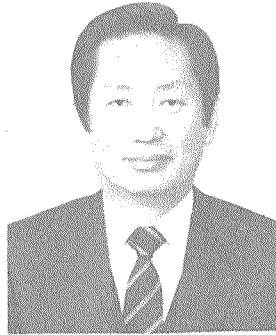
민근홍 이사 : 우리 전자산업이 '89년에 이어 '90년에도 어려운 상황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과대한 임금인상으로 2~3년 동안 약 85%나 오르고 노동사분규가 장기화되며, '87년에서 '89년까지 16.6% 정도로 원화절상된 상태고 일본은 14.4%절하로 우리와 약 31%의 차이가 나므로써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도 원화가 조금은 평가절하됐지만 오늘 현재 3.9%정도 절하된 반면에 일본은 5% 정도 절하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원화와 엔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가전제품 즉 VTR, 멀티TV, 전자렌지 등의 제품들은 오히려 10내지 15%정도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10% 정도가 일본제품들이 더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출주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좌담회는 시장개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자산업 기술개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투자활성화, 통상무역제도, 인력확보, 생산성 향상 등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은 정부에 건의해서 전자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조 부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조 부회장 : 우리 전자산업은 지금까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모방기술과 저가품의 양산체제

66

저임금, 모방기술, 저가품의 양산체제로 고속 성장을 한 전자산업이 한계를 노출, 관·산·학의 협력이 절실...

99



권혁조 부회장

로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나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에는 '80년대 말까지도 매출액의 4%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이미 7%를 넘는 미국과 서독은 물론 5%를 넘는 일본에 비해 무척 인색한 수준이고 금액면에서도 이들 국가에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이 이제는 한계점에 와 있고 특히 전자제품의 Life-Cycle이 극히 짧아져 모방기술로 뒤쫓아 가기에 우리 기술력과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후발 업체들에게 금방 잠식을 당해 제품의 가격 하락이 심화되기 때문에 기업체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민근홍 이사 : 우리 전자산업이 기술개발 낙후로 기업 체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은 시장개척에 대해서 이희춘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희춘 사장 : 저희가 수출은 하고 있어도 산업전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품질에서 가격 결정이 되니까 결국 품질이 문제가 되는데 품질면에서 보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완제품을 만들더라도 소재 자체까지 생산할 수 없고 또 국내에서 저가의 좋은 소재를 구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코네티를 만드는데 좋은 상표를 붙여서 출하해도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격경쟁에서 비싼 부품을 사용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또한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많이 만들고 과거보다도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소재산업이 고도화되도록 본격적으로 지원이 돼야 좋은 소재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좋은 소재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의 자동화쪽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전자렌지부품을 납품하고 있지만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여건에 따른 가격문제가 기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근홍 이사 : 가격도 비싸고 품질, 소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대만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소규모 운영과 저가의 부품 가격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개척을 하므로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격의 문제지만 판로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우리 시장이 대만의 경우와 어떤지,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는지, 또한 업체 자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희춘 사장 : 단일기업의 생산능력은 우리가 우수하지만 대만의 경우 소규모의 집합 경영으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시장 저변확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집합으로 저가의 많은 물량공급이 용이하므로 대만산과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화기술 제품으로 나아가야 경쟁력이 있는 수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민근홍 이사 : 저가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일본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높여야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OEM 수출이고 약 40% 정도가 자기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브랜드화의 방법,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단계적 발전방법 등 신시장 개척 문제에 대해서 말

66

소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99



이희춘 사장

씀해 주시지요.

한규완 부회장 : 그리고 우리나라 소재·부품이 대체로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부품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와 Set 업체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Set 업체의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체는 자금력, 기술력과 기술개발 의욕이 없어서 부품개발이 어렵다고 하고 부품업체는 Set 업체의 구매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품질 위주보다는 가격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부품업체와 Set 업체간에 협력체제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황태진 전무 :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우 큰 차이가 뭐냐고 할 때 부품은 대만산이 상당히 저가로

나옵니다. S반도체에서 나오는 계산기 반도체칩만 하더라도 대만쪽이 상당히 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대 공급을 하려면 국산은 엄청나게 비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 다른 업체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구나 대만사람들은 공동구매를 하는데 S업체나 저회한테 몇 백만개 주문이 오면 가격, 조건이 고가나, 저가로 판다면 상대 안하겠다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S업체의 제품이 대만에 가는 경우 굉장히 싸게 팔게 됩니다. 또 부품업체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706 칩인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80원에도 사고 350원에도 사므로 공동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업체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떤 한 주문이 생산능력을 넘어설 경우 우리는 우선 자기시설을 늘립니다. 대만사람들은 주문이 능력 이상으로 들어오면 자기시설을 늘리지 않고 같은 업체하고 분배해서 합니다. 자기시설을 늘리지 않고 서로 협조를 하니까 나중에 불황이 되도 휴무하는 시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문이 오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되든 안되든 혼자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업체에 제품이 반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물건을 보면 틀림이 없는데 자기네 제품값은 저가도 아니면서 남의 제품에 대해서 소량구매에 대한 품질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다 이

겁니다. 따라서, 품질관리 노력도 아울러 경주해야 합니다.

한규완 부회장 : Set 업체들이 품질이 좋지 않다고 안사는 것보다 부품업체들이 품질개량을 안하면 안사겠다는 풍토조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황태진 전무 :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국산화시켰는데 중요한 부품이 국내에서 사용치 않으면 차라리 일본에서 사와서 제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하자가 있을 때 이진 메텍스 물건이 나쁘다고 하지 메텍스 제품에 들어간 부품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품업체가 영세하더라도 좋은 품질을 만든 데 스스로 노력하면 가격 경쟁이 되고 값이 싸져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규완 부회장 : 부품개발에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아니면 Set·부품업체간의 협력체도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하면 부품업체에 좋은 품질을 만들게 한다든지 정부가 해야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황태진 전무 : 일본에 日本電波工業(株)라는 회사가 있는데 Crystal 전문업체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했죠. 100년 정도 됐으니까 세계 Crystal 시장을 60%나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적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연구인력 임금보조와 우수연구소와의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황 태 진 전 무

인 투자와 저력을 쌓아간 거죠. 우리는 하나의 업체가 아무 것도 없이 돈 좀 있다하면 설립해 운영하니까 적자를 냅니다. 뿌리가 없고 저력이 없어서요. 여기서 무슨 일할 사람이 있고 무슨 연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쪽에도 유의해야 되고 이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게 첨단 소재인 센서인데 잘 만들어지도록 조직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돈만 주면 되는게 아니고 연구인력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근홍 이사 : 오랜 역사와 계속적인 투자에 바탕을 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 개발에 대한 견해를 천박미 이

사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천박미 이사 :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다는 현실들을 이해합니다. 우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부둥켜 안고 일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아예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기초 수입재라든가 부품 등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대기업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중소기업이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괴리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 부품을 개발했다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개발하기가 불안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남한테 그냥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역시 소재를 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겁니다. 저희도 소재를 조금 하고 있지만 계열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 조달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물건을 어떻게 소비시켜서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을 육성시키느냐 하는 것은 돈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에 Project를 주어서 개발한 결과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분배해 주는 방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컬러 TV 개발을 할

때 개발 프로젝트는 연구소 자체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삼성전자에서 Set로 개발해 달라는 의뢰가 왔었지요. 그런데 개발한 사람들은 순수한 학자·학생들이 개발해서 양산이 뭔지도 모르고 개발이 됐지요. 이것이 각 업체로 나가다 보니까 업체 실정에 맞는 개발방법이라든가 양산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TV Set를 개발하고 수출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조사해서 개발토록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방 사장 : 현재 연구소 등에서 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받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나 분야별로 의무적으로 연구개발에 봉사할 수 있는 의무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국가기술개발 차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몇년간 연구시켜서 기업체에 나가서 의무적으로 연구하는 제도는 인력확보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태진 전무 : 그리고 현행 특례법에는 공대출신 10명이면 1명 혜택을 주는 실태입니다. 대기업의 인력은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중소기업에는 안 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요. 또 대기업 임금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3~4년동안은 일 잘하다가도 보수문제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

정부 또는 진흥회 차원에서 해외에 한국전자단지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이 기 방 사 장

니다. 즉, 우수인력들의 중소기업 입사기피 경향이 심각할 정도인데 그 이유로는 첫째는 중소기업에는 장래가 없다는 생각, 둘째는 처우 문제 등으로 우수한 인력이 다 대기업만 가겠다고 하는데 40만원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째는 작은 업체는 더 이상 배울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2~3년 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아주 고질적인 좋지 않은 습성이지요. 기술자들이 관리직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고 관리자가 되지만 하면 실무는 손을 떼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네째는 신입사원들 일을 시켜 보면 현장에 적응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써야하는데 중소기업의 자체지

도능력도 문제지만 학과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문제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줄게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할 것은 다하고 중소기업에서 할 일까지 다가져가고, 이렇게 중소기업 고유 영역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정부가 기왕 도와준다면 중소기업에 임금을 보조해 주고 중소기업이 정말 우수한 인력을 갖고 있게해서 우수연구소하고 서로 같은 수준에서 협력하는 창구도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민근홍 이사 : 다음은 통상무역제도에 관해서 최영호 이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영호 이사 : 통상무역제도 자체가 잘못해서 안되는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를 집행하는 당국은 규제만 강요하고 있어서 오히려 통상업무에 저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외환거래법, 무역법,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못하게끔 규제하던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현금이 송금되면 5만불 이상이면 세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선적이 늦어지는 만큼 회사에서 손해를 봅니다. 바이어하고 약속하에 10만불, 20만불을 L/C로 결제해도 마찬가지로지만 바이어가 주문하면서 현금을 미리 보내옵니다.

바로 은행에서 매입을 하면 절상되는 환차만큼 손해를 적게 보는데 우리는 일일이 신고를 해야돼요. 따라서 기업의 부대비용이 더 나가게 되는 결과지요. 이처럼 실질적으로 제도 때문에 지출하는 돈이 많아요. 또한 세관의 관세법을 대폭 바꾸어서 수출입 같은 것은 모두 자율적으로 처리하게끔 하고 세관의 기능은 탈법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기능만 했으면 오히려 수출이 잘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뭏든 저는 정부가 업체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업체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민근홍 이사 : 수출입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무역제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입제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영호 이사 :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생산라인을 자동화하고 오버헤드를 줄이고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싼 좋은 제품이 일본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A/S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입초국 수입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따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천박미 이사 : 국내 기술개발은 중복 기술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 학계, 업체가 3위 일체가 되서 기술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66

기술개발은 중복투자를 지양, 정부·학계·업체가 3위일체가 되어 공동개발 체제로 핵심 부품 국산화에 노력해야...

99



천 박 미 이 사

특히 기술 개발한다고 나름대로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의 개발은 중복투자가 되는 거지요. 좋은 예로 HDTV 같은 것은 단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부품개발이건 차세대 제품이건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개발된 결과는 누가 차지하든 제품제조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어떻게 응용하고 양산할 것이냐는 능력에 달려 있듯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아뭏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기술력 양성도, 개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못하는 것은 자금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

죠. 중요 핵심부품들 중 대형 브라운관, 액정판넬, 고체소자, 줌렌즈, Laser Pick up 등은 시장 가치,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들인데 이런 것은 서로 협력해서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근홍 이사 : 중복 기술투자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정부, 학계, 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기술력 양성도, 개발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이기방 사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기방 사장 : 기업 환경에서 제조업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테크 산업이 경제 전반을 풍미하고 있는데 제조업 전체에 대한 혁신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제2새마을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대전제가 이렇게 돼야하고 제조업 발전을 위한 활성화는 기업차원, 정부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까지는 임금상승, 제도적 간섭, 규제 등으로 분위기가 위축돼 왔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자금 지원, 세액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설대체, 자동화도 해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저리 대출, 세제 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확보, 인건비 때문에 저도 동남아 쪽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금과 인력도 문제이거나와 법인을 세워서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이든 진흥회 차원이든 해외에 한국전자단지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싼 값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나가면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드니까,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하면 국익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Set 업체보다는 부품업체들이 진출하고 대기업은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에서 현지생산이 되니까 싼 값에 공급받은 부품을 가져다가 생산을 하니까 충분히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근홍 이사 : 그동안 기업환경으로 보아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여건 등의 변화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황태진 전무 :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접근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제조공정에서부터 생산근로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제조상 문제가 뭔지 요소요소 지적해 주면서 자동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한달만에 20내지 30% 상승이 되고 1년이 지나니까 100% 향상 됐습니다. 사실 말로만 생산성 외쳐봤자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선 개발에서 시작해서 제조공정 기술상에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최종검사를 CCTV 카메라로 워드 프로세싱해서 하는데 3~4년 숙달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는 일도 기계가 다 해버려

66

**원자재 수입시 화물인도 때
화물선취보증서로는 불가능
해져 기업의 자금부담이 더
해져 이는 시급히 조정·개선
되어야...**

99



최영호 이사

요. 이러한 공정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근홍 이사 : 어떤 분은 도급제를 해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TQC 교육을 하니까 20% 상승됐다, 또 생산라인 10개 중 2개는 도급을 시켰더니 100% 상승하더라는 등의 말씀도 하시던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최영호 이사 : 저희 같은 구로공단에는 보세공장들이 많은데 마음대로 도급을 줄 수도 없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자체 문제보다도 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구정휴일 등의 정부 휴일이 많아서 생산이 안됩니다.

한규완 부회장 : 휴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체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부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업체

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죠.

최영호 이사 :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이죠, 더구나 4월 1일부터 주 46시간에서 44시간 일하게 돼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떨어져 버리면 실질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규완 부회장 : 좌담회는 원론적인 측면, 개선점,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는데 특별히 꼭 개선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조 부회장 : 앞으로는 소량 다품종의 생산 능력을 배양하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에 역점을 뒤야하고 기술개발 투자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문제는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품질향상이 어렵고 노사분규로 인한 투자억압 감소, 생산성 저하는 물론 기업의 투자 능력까지 어려운 현실이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에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고보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 업계는 동종업체끼리 공동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둘째, 산학협동이 더욱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세째, 관은 세제 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천막미 이사 : 전자업계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740원대로 절하되지 않으면 살아 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조정 시점이 조기 실현 돼야 됩니다. 국내시장은 특소세 대폭인하 등으로 내수활성화 촉진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다음은 수입개방에 관계되는 수입선 다변화품목 확대 및 수입개방 시기는 연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21인치 이상 TV라든가, VTR, 캠코더 등은 '93년 이후로 미루어 졌으면 합니다.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규격제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중금리를 2% 인하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금리가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등에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인하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 관련학과의 정원확대를 건의합니다.

한규원 부회장 : 이공계 학생 증원 문제는 여러번 제기 된 적이 있습니다만 관계당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이흥부 상무 : 국산 외제품에 대한 수입규격 문제는 공진청하고 협의 하겠지만, 전자업계에서 필요한 이공계 출신 인력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당국인 문교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전자업계가 힘을 모아서 전자업계 공과대학을 세우는 것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좌담회 전체로 보면 문제의 80%는 전자산업 자체에 있습니다. 결코 남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

66

전자업계에서 필요로하는 인력공급을 위하여 업계에서 투자하여 전자업계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99



이 흥 부 상 무

습니다. 우리 전자업계도 나름대로 불륨이 크고 하니까 업계 자체에서 투자하여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방 사장 : 우리나라도 10대 수출국인데 수출검사 제도를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해외 촉진책으로 정부차원의 현지공단 설치를 요망합니다.

한규원 부회장 : 수출검사소에는 상당한 시설이 돼 있어요. 갑자기 준비태세가 없이 폐지돼 버리면 지적기술인력이 실업화가 돼 버리고 시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차츰 단계적으로 해서 자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기방 사장 : 또 한 가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율을 인

하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춘 사장 : 기초 소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과감하게 내려야 합니다.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좀더 규제하고 수출품 제조용의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웨라이트 같은 것은 수입을 해야 되는데 '89년에는 15% '90년도에는 13%인데 약 2% 인하되면 산업발전에 기여되는건데 말이죠.

한규원 부회장 : 우리나라 관세정책이 산업관세, 재정관세 쪽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때 시급한 구체적인 갈등은 어떻습니까?

최영호 이사 : 오는 5월 1일부터 B/L 원본이 아니면 화물인도를 거부하도록 되있는 사항이 있는데 선박회사에서 나오는 소위 화물선취 보증서라는 것을 가지고는 찾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희같은 업체들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최소한도 오픈시점이 5~7일 정도 빨라져야 하거든요. 생산계획에 맞추려면 말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화물선취 보증서로 B/L 원본이 아니면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전 업체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진흥회 차원에서 선박회사측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춘 사장 :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결국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많이 주지도 못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오지도 않는데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몇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흥부 상무 : 그래서 중소기업 연구소 인원을 5인 이내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요즘은 현대 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기 자체가 자동화·전자화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나 봅니다. 아뭏든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희춘 사장 : 방법은 또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금을 100만원 준다면 중소기업은 50만원 주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에서 다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66
**우리 전자산업은 최근 들어
 임금상승,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
 증대책 모색이 시급해...**

99



민 근 흥 이 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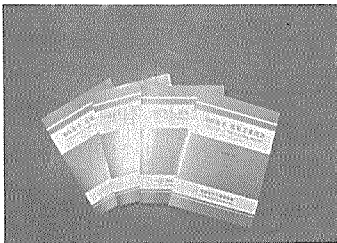
이흥부 상무 :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액만큼 더 주는 것을 손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회사 자체의 손비로 하면 한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도 우수한 기술자를 쓸 수 있도록 대기업만큼 회사의 보통률에 의해서 신입사원에게 30만원을 줄 것 같은면 현실은 60만원을 주면 나머지 30만원은 손비로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민근홍 이사 : 지금까지 전자 수출산업 증대책을 위한 다방면의 현안 문제,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흥회도 현안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하여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간 안 내

'89 電子·電氣工業統計 發行



本會에서는 '89년도의 우리나라 전자·전기공업 수급 실적이 수록된 「'89 電子·電氣工業統計」를 발행하였다.

同 책자에는 '88년과 '89년의 품목별 수급실적이 생산, 수출, 수입, 로칼, 내수 등으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전자·전기공업의 볼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장조사는 물론 경영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88~'89 국가별 부문별·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과 '88~'89 주요국가별 품목별·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 등이 수록되었다.

- 판형 : 5·7 배판
- 면수 : 380면
- 가격 : 20,000원(본회 자료실에서 배포)